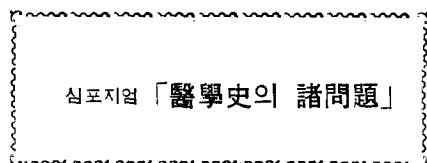


ation sur la physique의 편집인 La Metherie가 가장 냉혹하고 영향력있는 비판자였다. 이에 대해서 창간된 *Annale de chimie*(1789)는 새로운 화학명명법으로 가득찼다.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Chaptal로서 그는 *Elements de chimie*(1793)에서 새 명명법을 채택했다. 한편 영국에서는 Black이 앞장서서 새 화학을 커리큘럼에 도입했다. 이렇게 해서 화학혁명의 주요 장애가 해결되었다. 화학명명법의 개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나 처음으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이 Lavoisier였다.



1977. 11. 26

醫學史 研究의 意義

서울大醫大 名譽敎授 尹 日 善

醫學史는 科學史의 一部입니다.

科學史는 文化史의 一部입니다.

人間은 누구나 自己分野에 있어서 文化의 創造者입니다. 거기서 生命의 躍動과 삶의 幸福을 느낄 수 있습니다.

버트런드 라슬도 幸福은 創造에 있다,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, 창조충동의 만족에서 生의 幸福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

人間은 생각함으로써 살아왔습니다.

뿌엥까레도 科學은 思考의 産物이라고 하였습니다.

또 그는, 自然科學의 理論이 經驗을 模寫하는 것이 아니고 純粹히 發展시킨 思惟의 構成의 所産이다, 理論은 主觀히 構成하는 것이고, 事實의 模寫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.

또 科學은 好奇心에서 始作된다고 하였습니다.

科學은 觀察과 實驗에 依하여 發展하여 왔습니다.

코넬트도 새로운 概念은 實驗 或은 觀察에서 進展되었다고 하고, 새로운 技術은 實驗의 結果라고 하였습니다.

화이트헤드는 科學의 展史는 哲學의 歷史와 平行한다고 하였습니다. 또 文化는 思考의 活動이라고 하였습니다.

페링톤도 科學은 思考의 創造이고 科學의 方法보다 科學의 思考가 더 重要하다고 하였습니다.

平生醫學徒인 醫療人도 醫療文化의 創造者라고 할 수 있습니다. 醫學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, 自己學問의 歷史를 알고 研究하여야 할 줄 압니다. 卽 溫故知新의 精神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.

이러한 데에는 多幸히 先人들이 그들이 創造한 無盡의 寶庫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. 우리는 이를 감사히 생각하여 옛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.

회람哲學은 科學哲學입니다. 히포크라테스의 醫學도 그 哲學과 平行한 것입니다.

술라이든, 슈반의 細胞의 發見없이는 비르호우의 細胞病理學도 없습니다.

우리 醫療人의 行蹟은 永遠히 우리 醫學史에 남아 훗날 溫故知新의 原典이 된다고 생각하고 삶의 價値의 幸福함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.

許浚이 韓國漢醫學에 미친 影響

圓光大漢醫大 講師 康 秉 秀

韓國 漢醫學은 中國의 漢醫學과 體系를 달리하고 있다. 그것은 中國醫學을 꾸준히 吸收하면서 韓國의 環境과 體質에 맞는 漢方醫學으로 發展시켜 왔기 때문이다.

韓國 漢醫學은 時代의 흐름에 따라 다음 五段階로 區分하여 볼 수 있는데, 1. 三國前後를 中國醫學을 輸入하는 時代, 2. 高麗時代를 鄉藥을 活用하는 時代, 3. 李朝時代를 體質改善의 時代, 4. 近世朝鮮時代를 受難時代, 5. 現代를 洋漢方의 共存, 協同의 時代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이들 중 李朝醫學은 三國 前後에서 高麗대에 이르는 中風, 傷寒의 古方醫學에서 時代의 後世醫學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過程에서 韓國의 環境과 體質에 맞는 實用醫學으로 方向을 轉換시켰다는 데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되며, 특히 여기에 寄與한 龜巖 許浚의 功績은 至大한 것이었다.

龜巖은 1546年 4月 15日 김포군 양천면에서 出生하여 1615年 9月 5日 70歲를 一期로 卒하였다.

그가 醫科에 登科하여 (1574) 그 이듬해 30歲로 內醫院의 醫官이 되어 約 40年 간에 걸쳐 王室診療에 貢獻하면서 그가 校正, 編述, 諺解한 冊은 八冊이었다.

이들 著書의 目的과 內容을 考察해 보면 敎育, 醫療普及, 救急醫療과 특히 東醫實效의 編述은 韓國漢醫學